

소공동체와 예비신자 교리교육

: 소공동체와 함께 하는 예비신자 교리서 「함께 하는 여정」

들어가며

1. 강의식 교리서와 「함께 하는 여정」의 일반적인 차이
2. 「함께 하는 여정」 소개
3. 「함께 하는 여정」 진행 순서
4. 「함께 하는 여정」 진행 방법
5. 「함께 하는 여정 길잡이」 소개

나가며

소공동체와 함께 하는 예비신자 교리서

「함께 하는 여정」

김 엠마누엘라 수녀

서울 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프로그램 개발담당

소공동체 사목 전국협의회 양성위원회 위원

들어가며

초대교회에서 점차 예수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사라지면서 예수를 신화적이거나 전설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이단이 등장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잘못된 이단을 바로잡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건 등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며 초대교회는 이 성경을 교리서로 사용하였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¹⁾

1500년 경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함으로써 가톨릭 내에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프로테스탄트의 이론이나 주장과는 다른 가톨릭의 교의를 교조적이고 호교론적인 입장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교리문답으로써 신자들에게 교육하였다. 1700년 경 전 세계로 선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어린 입교 신자가 늘어났고 이들을 위해 교리문답식 교리가 진행되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예비신자 교리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약 천여 년 동안 잊혀져 왔던 ‘성세 입교 기간’의 부활을 제 문헌에서 권고하였다.²⁾

지금까지 예비신자 교리는 영세 받은 신자들에게 교육하듯이 그 교리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여정” 예비신자 교리서는 신자와 예비신자가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한다. 강의식 교리는 예비신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타고난 지혜 그리고 하느님 성령의 임하심을 간과(看過)하기 쉽다. 삶과 연관이 없는 단순한 지식 습득으로는 회심을 통한 새로운 결단과 투신에 이르기가 어렵다.

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여정” 교리는 많은 이점이 있다. 기존 신자들은 이를 통해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쇄신하며 평신도 사도로 양성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함께하는 여정”은 ‘삶’에서 ‘삶’으로 그 중심을 바꾸어 가는 새로운 교리 양식에 기초한 것이다.

1) 요한 20: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 전례 헌장 64-71항; 교회 헌장 14항; 선교 교령 13항; 주교 교령 14항 참조

1. 강의식 교리서와 「함께하는 여정」의 일반적인 차이

기존 교리서와 「함께하는 여정」의 내용구성 및 교리교사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아래 표는 자료집 p277 참조)

1) 구성상의 차이

| 내 용 | 기 존 교리서 | 함께하는 여정 |
|----------------------|------------------|-----------------------|
|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서론 · 본론 · 결론식이다. | 삶으로 바로 들어간다. 삶을 나눔 |
| 보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참고 서적 | 성서, 주변의 삶과 그 사람에게 관심 |
|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개념적 언어 | 일상 언어 |
| 구성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연역적, 사변적, 이론적 | 귀납적, 구체적, 실천적 |

2) 교리 교사의 차이

| 내 용 | 기존의 교리서 | 함께 하는 여정 |
|---|-------------------------------|-------------------------------------|
| 교리반 봉사를 위하여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 지식, 책 | 삶 |
| 봉사자들은 교리 전에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고 준비하겠습니까? | 잘 전달하는 방법 | 잘 참여시키는 방법 |
| 봉사자들은 교리 중에 특별히 어떤 점을 예비신자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예” 라는 답을 얻어내려 한다. |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에 참여시키려고 한다. 삶을 나눈다. |
| 봉사자들은 어떤 어조로 교리를 진행하겠습니까? (예, 설명조, 연결조 등) | “이건 이렇습니다” 의 설명조 |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진행조 |
| 봉사자들은 예비신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 가르쳐 주는 사람(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수직적 시선) | 도와주는 사람(보조자, 협조자) 함께하는 사람(형제자매의 관계) |
| 적절한 교리 봉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 교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공동체적 삶으로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사람 |

(*이 내용 추가) "교육자 입장에서 전달식 강의는 40%,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된 교육은 90%"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2. 「함께 하는 여정」 소개

(*아래는 자료집 p280 참조)

1) 발간 목적

『함께 하는 여정』은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며, 그들 삶에 동반하시는 예수님을 보다 깊이 만나 그분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 안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더불어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친교를 나누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개정판은 예비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그들 삶에 대한 회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 발간 과정

『함께 하는 여정』은 1995년에 한국어로 출간되었고, 이어 2001년 우리나라의 상황에 보다 적합하게 재구성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함께 하는 여정』은 원본을 펴낸 남아프리카 움타타 교구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에 의해 아시아에 소개되었습니다. 독일인 선교 사제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어 1976년부터 룬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는 1990년 인도의 반등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주교회회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회의 중에 소공동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목 경험과 활동들을 아시아 지역 주교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한 성서 말씀(2)에서 비롯된 '함께 하는 여정'이라는 말은, 아시아 주교들이 아시아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최종 선언문)을 '제3천년기를 향해 함께 하는 여정(Journeying together toward the Third Millenium)'이라고 부르면서 아시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주요 단계

『함께 하는 여정』 단계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여정과 같습니다.

(1) 만남의 시기(전 예비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꼈듯이 예비 신자들도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과정 안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비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예비 신자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뜨겁게 하십니다.

(3) 정화.조명기

엠마오 제자들처럼 예비 신자들도 결단을 내리고 "이미 날도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러라."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나면, 선발된 자로서 등록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받기 직전 얼마동안은 정화와 조명의 시기입니다.

(4) 입교 성사 집전기

우리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그리고 성체 성사를 '입교 성사'라고 합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를 하느님의 신비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입교'시키거나 '인도'합니다. 제자들이 빵을 쪼갤 때 주님을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 신자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5) 심화의 시기(일치.신비 교육기)

예수님을 알아 보았다고 해서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로써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심화하기 위해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서로의 신앙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비 신자들도 세례 성사를 통해 주님과 하나되고 교회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주요 내용

『함께 하는 여정』은 28과로 구성된 본문 내용과 7가지의 부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과부터 제28과까지의 본문 안에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성모 마리아, 성사 등 여러 가지 주요한 교리 내용을 삶의 이야기, 하느님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단계로 다룹니다.

부록에는 예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교리 상식들을 설명한 '궁금해요'와 '받아들이는 예식, 선발 예식, 주요 기도문, 미사 통상문' 과 같은 관련 전례 내용 그리고 보다 쉽게 '궁금해요' 내용과 책에 수록된 성경 구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궁금해요 찾기, 성서 구절별 찾기'가 실려 있습니다.

『함께 하는 여정』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여정’ 신자용 목차 삽입-맥 편집 있음)

5) 각 과 구성(*자료집 p282-296)

『함께 하는 여정』은 각 과 주제를 '삶의 이야기, 하느님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다룹니다.

'삶의 이야기'는 각 과 주제와 관련한 삶의 현실을 사진이나 글을 통해 제시하면서 우리 이웃이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 안에서 그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성서 말씀을 제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말씀에 비추어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각 단계를 서로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나눔 형식을 통해 진행시켜 가기 때문에, 『함께 하는 여정』으로 교리를 마친 예비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서를 찾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자연스러우며, 하느님의 말씀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3. 「함께하는 여정」 진행 순서

1) 환영

(1) 교리에 온 예비 신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예비 신자들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도록 원으로 앉게 합니다. 예비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봉사자도 공동체의 한 일원이므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예비 신자들과 함께 원을 이루어 앉습니다.

(3) 서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2) 초대 기도

(1) '자유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도록 합니다. 교리 시작 처음에는 예비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아주 짧은 자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과에 제시된 자유 기도 예문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2)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여 차차 성서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시작 기도할 사람을 지명하지 말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봉사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중간쯤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4)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5)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듯이 다정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합니다.
- (6)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그분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삶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은 당신 백성들의 여정에 함께 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인간 역사에 전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주변 상황과 문제점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하는 여정』 각과는 이러한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삶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삶의 이야기에 나오는 글이나 사진은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자들이 삶 안에서 겪을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글이나 사진에 비추어서 살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함께 하는 여정』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교리가 지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예비 신자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실제적인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 (1) 사진 또는 글을 통해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문제 의식을 갖게 합니다.
- (2) 다양한 질문과 대화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 (3) 봉사자는 예비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 격려하며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예비 신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해야 하고 대화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 (4) 대화의 분위기가 지적인 토론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영적인 분위기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5) 교리 시간이 짧거나 참가 인원이 많은 경우(10명 이상의 경우) 옆 사람과 둘씩 짝을 지어 이야기하는 짝 대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다음 교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5-6명 이하의 경우) 짝 대화보다 전체 대화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4)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말씀은 그분의 현존을 나타내는 '성사적 표지'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함께 하는 여정』은 성서 말씀을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진 군중 속의 여인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둡니다.4) 하느님 말씀에 자신을 열고 있는 신자들의 모임 안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성서를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실현될 것입니다.5)

하느님 말씀 단계는 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느님 말씀 읽기

성서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복음 펴 주십시오."

"... 장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 절부터 ...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봉사자는 예비 신자들이 성서 본문을 직접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성서 본문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 복음이라고만 말하고 잠시 기다린 다음 주위를 둘러보아 모든 사람이 찾은 것을 확인한 후에 봉독해야 할 장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시 잠시 기다린 이후 절을 알려 주면서 독서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서는 예비 신자들 중 누구라도 읽을 수 있으므로, 한 두 사람이 계속 읽기보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읽는 사람도 지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한번 더 읽도록 청합니다.

성서의 장과 절을 한꺼번에 말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본문을 찾음으로써, 기도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서의 장과 절을 한꺼번에 알려 주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 봉사자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당 장과 절이 무엇인지

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초대 기도로 조성해 놓은 기도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봉사자 자신이 성서 본문을 읽지 않고, 또 읽을 사람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는, 봉사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모든 예비 신자들을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기보다 예비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비 신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밀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로써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느님 말씀을 외치고 묵상하기

다음 성서 구절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어 주십시오(같은 구절을 세 번 되풀이하여 읽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성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기도하듯이 소리 내어 반복함으로써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사이사이, 그리고 한 사람이 반복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반복하는 사이에 짧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이 말씀이 예비 신자 모두의 마음에 조용히 메아리치게 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하며 나아가 성서 본문에 가득한 보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심지어는 우리에게 도전거리를 제공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진행하면, 예비 신자들은 기도의 가장 심오한 형태인 관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라도, 소리를 내어 혹은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반복하노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앉으셨다."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현존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 곁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 말씀이나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에서 사용해 오는 좋은 기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하느님 말씀 나누기

봉사자는 예비 신자들에게 제시된 질문을 던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눔을

사람들의 견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피상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눔이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각자가 체험한 신앙은 어떠한지,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 여정에서 겪는 기쁨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이므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과 예비 신자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구성원 모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유대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설령 예비 신자가 성서 구절에 관하여 설명을 할지라도 그 설명에 관하여 질책하거나 토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과 함께 제시된 그림을 바라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도록 하면 보다 쉽게 성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참고 성서

참고 성서에 제시된 성서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읽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개인적으로 읽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성서 필사를 권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6)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게 한 후에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거나, "성서에 비추어서 시대의 표징을 해석"⁷⁾함으로써, 예비 신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예비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 체험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단계입니다.

7) 마침 기도

성호경이나 주모경 또는 간단한 자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그 날 모임에서 나온 삶의 이야기나 하느님 말씀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궁금해요

『함께 하는 여정』은 본래 교리 교사의 이론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에 맡겨드리면서 서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전제로 발간된 교재입니다. 때문에 교리 기간이 짧은 한국 교회 상황상 이론 교리를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론 내용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함께 하는 여정』 개정판에서는 '궁금해요'란을 통해 교회 가르침의 주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봉사자는 예비 신자들과 함께 '궁금해요' 내용을 꼭 읽어 보면서 예비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봉사자는 본 모임에서 잘 할 수 없었던 이론 설명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궁금해요 ()쪽 ()번을 보십시오.
- (2) 어느 분이 읽어 주십시오.
- (3)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4) 이 글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봉사자가 질문을 읽고 예비 신자가 답을 읽는 진행 방법도 좋습니다.

4. 「함께하는 여정」 진행 방법

1) 사전 모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봉사자일지라도 항상 초심의 자세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전 모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사전 모임에서는 『함께 하는 여정』 교리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할애하여 모의 교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과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보아야 하며, 봉사자 서로의 경험을 듣고 나누면서 예비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더불어 교리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본 모임

예비 신자들에게 초대 기도와 마침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교재 안의 '삶의 이야기'와 '하느님 말씀'을 읽도록 청합니다. 또한 책에 나오는 질문을 예비 신자들에게 던집니다. 예비 신자들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여러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비 신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먼저 대답하지 말고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줍니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답할 수 있는 선에서 답해 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답일 때는 사제, 수도자, 전문가에게 물어 본 후 차기 모임 때 알려 주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봉사자의 지식보다도 겸손한 자세와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예비 신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들도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지 준비해야 하므로, 단계적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여정』 봉사를 처음 하시는 분은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1과를 예로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예문은 꼭 따라 해야 하는 표본으로서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1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진행자 >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대 기도를 한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하는 여정』을 진행할 봉사자 _____(이름과 본명)입니다. 만나 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좋고 첫 만남이니까 제 옆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다 함께 큰 소리로 제1과 제목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할 내용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전.후에 성호경을 하는데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동작 안내)으로 합니다. 처음이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주님, 함께 해 주세요.'처럼 아주 짧게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우시면 책 9쪽 중간쯤에 있는 예문에서 하나를 선택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유기도)

가. 삶의 이야기

본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과는 크게 가, 나, 다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 단계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아래의 이야기를 읽어 주세요.

(읽음)

1998 년 9월호 경향 잡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나요? 15쪽에 있는 질문 1)과 2)를 다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 1)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 2) 내가 누군가로부터 깊이 사랑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 하느님 말씀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더 많이 풍요로워지는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 단계 하느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고 감싸 안으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서를 통해 살펴 봅시다.

먼저 오늘의 성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중에서 신약 성서 부분, 루가 복음을 펴 주십시오.

(잠시 찾을 때까지 기다림)

루가 복음 15장을 펴 주십시오.

(잠시 찾을 때까지 기다림)

루가 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어느 분이 읽어 주십시오.

(성서 본문 읽음)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페이지를 한 장 넘겨 16쪽을 보시면 방금 읽은 성서의 몇몇 구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은 성서 말씀 중에서 짧은 단어나 문장을 세 번씩 천천히 소리 내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성서 말씀을 외치면 다른 분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각자 성서 말씀 외침)

이제 질문 1)과 2)를 다함께 큰 소리로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1)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의 심정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2)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느님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쉼터이며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다함께 마태오 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아래에 보면 시편, 이사야서, 요한 1서를 내용으로 하는 참고 성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함께 읽어 보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다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을 향한 향수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은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그리움의 대상이며 인간이 참으로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당신께 다가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성당에 나오게 되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눔)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성호경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궁금해요

궁금해요 질문과 대답을 읽고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130쪽을 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질문은 제가 읽고 대답은 여러분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 들어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알려 주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양식으로 계속 질문과 대답을 읽으면서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봉사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앞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자체 평가

(*‘함께하는 여정’ 신자용 11과 p54-57 수록-맥 편집 있음)

5. 『함께하는 여정 길잡이』 소개(*자료집 p297-298 수록)

1) 목차

추천사 5
발간사 6
일러두기 12

제1장 『함께 하는 여정』은 어떤 교리서인가요?

제1과 개요 20

제2과 진행 순서 24

제3과 진행 방법 32

제2장 『함께 하는 여정』 각 과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1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2

제2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47

제3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50

제4과 이렇게 기도하여라 53

제5과 보시니 참 좋았다 56

제6과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사랑 60

제7과 믿음과 하느님의 약속 63

제8과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습니다 66

제9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70

제10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73

제11과 소외된 사람들 76

제12과 하느님 나라 78

제13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81

제14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85

제15과 성령 90

제16과 사랑과 일치와 삼위일체 94

제17과 하느님의 백성, 교회 97

제18과 믿음의 여인, 성모 마리아 102

제19과 세례 성사 :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 105

제20과 성체 성사 : 희생과 사랑 108

제21과 고해 성사 : 용서와 화해 113

제22과 견진 성사 : 성숙한 신앙 116

제23과 혼인 성사 : 사랑과 신의 118

제24과 성품 성사 : 겸손과 봉사 120

제25과 병자 성사 : 치유와 희망 123

제26과 사귄.섬김.나눔 126

제27과 위대한 신앙의 증거자 129

제28과 영원한 삶 133

제3장 『함께 하는 여정』 봉사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제1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로서의 자세 138

제2과 예비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이로서의 자세 143

제3과 참다운 리더십을 갖춘 이로서의 자세 148

제4장 『함께 하는 여정』 교리반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제1과 교리반 운영 방법 152

제2과 교과 과정표 실례 156

제3과 중간 탈락자와 새 영세자 관리 162

부 록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8

함께 나누어요. 172

참고 자료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189

(*자료집 p301-298 수록)

2) 목적

『함께 하는 여정 길잡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 하는 여정』으로 예비 신자 교리를 하는 봉사자들이 보다 쉽게, 보다 원활히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3) 내용

『함께 하는 여정 길잡이』 내용은 집필 작업 전에